

대한민국 식량 공급·식품 안전을 지키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재단 6차년도 연보

2015년 1월 - 12월





## [목 차]

· 이사장 인사말	02
· 임원 및 직원 명단	03
· 6차년도 사업내용	
- 이사회 개최	05
- 연구사업	05
- 학술회의	06
- 저술 출판사업	08
-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진행사항	09
· 6차년도 재무보고(2015년 12월 31일 기준)	11
· 2016년도 사업계획	12
· 2016년도 예산	13
· 이사장 칼럼	14

## 이사장 인사말



지난 11월 재단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6시에 차를 몰고 가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CBS FM방송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선율을 들으며 문득 이 이른 새벽에 이사회에 오실 이사님들과 감사님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식품 대기업의 CEO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분들이 이 나라의 식량안보를 위해 아침잠을 설쳐가며 오시는 그분들의 순수한 열정에 코끝이 시리도록 감동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연초에 떨리는 마음으로 한해를 시작하였으나 생각보다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재단 연구과제로 시작한 '창조농업혁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정책자문보고서 집필위원회 지원과제로 채택되어 제95회 한림원탁토론회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농업 발전방안'이 열렸고, 그 결과 한림원의

목소리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창조농업혁신을 촉구한다'가 발간되어 정부, 국회, 청와대, 학계에 널리 배포되었습니다. 농업혁신을 위해서는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야 하는데 일부 GMO 반대론자들에 의해 막혀있는 농정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나라 과학계 최고 석학들이 모인 한림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저희 재단은 이 문건 6000부를 추가로 인쇄하여 전국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발송하였습니다.

재단은 제14회 식량안보세미나 '식품안전과 식품산업의 사회적책임 경영'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상생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제15회 식량안보세미나로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2015 국가위기관리 정책토론회 '기रो에선 한국의 식량과 에너지 정책'을 개최하였습니다. 식량안보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하여 주신 모든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재단의 출판사업은 식량안보시리즈 제2권 '건강지킴이 보리의 재발견', 제3권 'GMO 바로알기', 제4권 '쌀의 혁명'을 발간하였으며, 특히 'GMO 바로알기'는 전국의 5,560여개 중고등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2012년에 발간한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의 영문화 작업을 3년여만에 마무리하여 'Korea Unification and Food Security'를 출판하여 국내외 관계요리에 배포하였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영문 자료가 희귀한 상황에서 이 책이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오는 새해에도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위한 연구 학술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지정연구과제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연구'를 시작하였으며, 공모과제인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할 신기술 연구로 '식량생산제고를 위한 육종기술 고찰'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수립과 과학계의 식량안보연구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을 사랑하시고 후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보람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철호

# 1. 임원 및 직원 명단 ■ ■ ■ ■

## 【고 문】



**권태완** 인제대학교 명예교수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식품과학 박사  
KIST 식량과학연구소장, 부원장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초대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콩세계과학관 건립추진위원장



**이현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미네소타대학교 화학공학 박사  
미네소타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전) 대통령실 과학기술특별보좌관



**김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  
(전) 제 4, 5, 6대 경기도의회의원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특보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이철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덴마크왕립수의농과대학 식품학 박사  
미국 MIT공과대학 연구원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미국식품공학회(IFT) Fellow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컨설턴트

## 【이 사】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발효화학 석사  
서울대학교 미생물학 학사  
CJ제일제당 대표이사  
CJ제일제당 총괄 부사장  
대상 바이오사업총괄 중앙연구소장 전무  
(재)식품안전상생협회 이사장



**명형섭** 대상(주) 대표이사 사장

고려대학교 농화학과 학사  
경희고등학교  
대상 대표이사 사장  
대상 식품사업총괄 전무  
대상 식품사업총괄 상무  
대상 전문당사업본부 서울공장장  
미원 기술연구소



**문성환** 삼양제넥스 대표이사 사장

헬싱키대학교대학원 경영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삼양제넥스 대표이사 사장  
휴비스 대표이사 사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경영협의회 회장  
삼양사 경영기획실장 부사장  
삼양사 경영기획실장 상무

## 【이사장】



**박관회** 대선제분(주) 대표이사 회장

펜실베이니아대학교대학원 석사  
서울상공회의소 제20대 대의원선출  
경북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대선제분 대표이사 회장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장

## 【이 사】



**박준** (주)농심 대표이사 사장

중앙대학교 사회사업학과 학사  
농심 대표이사 사장  
농심 국제사업총괄 사장  
농심 국제담당 이사  
농심 미국지사 사장

## 【재단 사무국】



**김미경** 사무간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



**노동환** 한국제분(주) 대표이사

한양대학교 영문학과 학사  
동아원그룹 재무기획실장  
해가온 대표이사  
동아SF 상무  
한국제분(주) 대표이사

## 【재단 연구부】



**이숙중** 박사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석사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이학박사  
고려대학교 부설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 연구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선임연구원

## 【감 사】



**문헌팔** 북방농업연구소 소장

캘리포니아대학교대학원 유전학 박사  
(전) 농촌진흥청 차장  
(전) 한림원 식량안보과학특별위원장  
한국중자포럼 이사장  
북방농업연구소 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 【출판부】



**김유원** 사장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도서출판 유림문화사 설립  
한국실업검정교과서 이사  
미국도서관협회총회 한국대표  
한국청소년도서협의회 이사  
도서출판 유림문화사 대표(현재)



**박현진** 고려대학교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 식품공학과 박사  
고려대 식품공학과 석사  
미국 클렘슨대학교 포장공학과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 2. 6차년도 사업내용 ■ ■ ■

### 2-1. 이사회 개최

#### (1) 1차 정기이사회



- \* 일 시 : 2015년 4월 16일 오전 7:30
- \* 장 소 : 조선히텔, The Ninth Gate Grille
- \* 참 석 자 : 이철호, 김철하, 명형섭, 문성환, 박관희,  
박 준, 문현팔, 박현진
- \* 회의내용 : 2014년 업무보고 및 결산보고, 2015년 사업계획 심의,  
2015년 운영예산 심의, 최병순이사 퇴임(임기만료),  
이철호이사장, 박관희이사 연임 동의로 가결

#### (2) 2차 정기이사회



- \* 일 시 : 2015년 11월 17일 오전 7:30
- \* 장 소 : 조선히텔, The Ninth Gate Grill
- \* 참 석 자 : 이철호, 김철하, 명형섭, 문성환, 박관희,  
박 준, 문현팔
- \* 회의내용 : 2015년 업무보고 및 가결산보고, 2016년 사업계획 심의,  
2016년 운영예산 심의, 노동환 이사 선임,  
박현진 감사 연임 동의로 가결

### 2-2. 연구사업

#### (1) 2015년도 재단 연구과제

##### 가. 지정과제 - 창조농업혁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 연구자 : 총괄책임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
- 제1세부과제: 생명공학기술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구조  
연구책임자: 한국소비자연맹 이항기 부회장
- 제2세부과제: 국내 농업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현황과 이의 적용을 위한 선결과제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주곤 교수
- 제3세부과제: 생명공학기술의 활용을 통한 한국농업 발전모델과 이득 예측  
연구책임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 곽상수 센터장

\* 연구기간 : 2015.01-2015.12

\* 연구비 : 2,000만원

\* 진행사항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창조농업혁신 정책자문보고서 집필위원회' 과제로 선정.

## (2) 외부 수탁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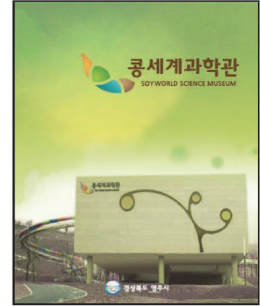
### 1) 콩세계과학박물관 도록 제작 연구용역

\* 용역 참여자 : 이철호, 유미경, 김미선, 이증원, 김미경

\* 기간 : 2014.12.17-2015.4.17

\* 용역비 : 15,380,000원

\* 진행사항 : 콩세계과학관 도록 제작, 500부(영주시에 제출)



### 2) 과학기술한림원 창조농업혁신 정책자문보고서 집필위원회

\* 위원장 : 이철호 이사장, 부위원장: 유장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 위원 : 문현팔(재단 감사), 박현진(재단 감사), 곽상수(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향기(한국소비자연맹), 박수철(농촌진흥청), 김주곤(서울대), 이숙중(재단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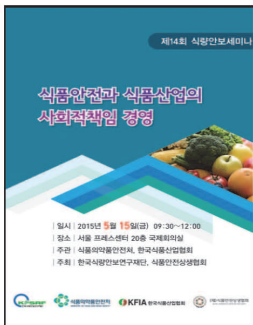
\* 연구기간 : 2015년 4월-12월

\* 연구비 : 회의비, 집필자 원고료, 세미나 개최비용

\* 진행사항 : 한림원에서 위원회 5회 개최, 11월 4일 aT센터에서 제95회 한림원탁토론회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농업 발전 방안' 개최. 제59호 한림원의 목소리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창조농업혁신을 촉구한다' 출판. 한림원에서 정부, 국회의원, 청와대, 과학계 등 2,000부 배포, 재단에서 6,000부 인쇄하여 전국 중고등학교에 배포함. 한국과학기술원 창조농업혁신 정책자문보고서 '생명공학 수용을 통한 한국 농업 혁신 정책방안' 책자 출판예정(2016년 2월)



## 2-3. 학술회의



### (1) 제4회 식량안보세미나 - 식품안전과 식품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 일시 : 2015년 5월 15일(금) 09:30~12:00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최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식품안전상생협회

\* 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산업협회

\* 발표자 : 김준호 원장(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유경모 부회장(ILSI Korea)  
손세근 사무총장(식품안전상생협회)

\* 토론자 : 이철호, 박태균, 신동화, 이근호, 이향기

\* 참석인원 : 100여 명, 자료집 200부 제작 배포



## (2) 제15회 식량안보세미나 ((재)행복세상 2015 국가위기관리 정책토론회)

- 기로에 선 한국의 식량과 에너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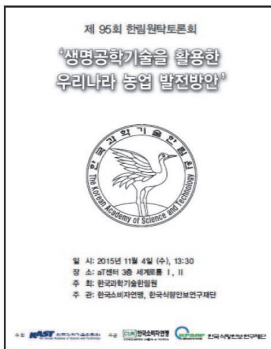


- \* 일시 : 2015년 9월 10일(목) 13:30~18:30
- \* 장소 :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 주최 : 국가위기관리위원회, 산업정책연구원, (재)행복세상,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한국정책포럼
- \* 후원 : 한국수력원자력(주)
- \* 발표자 : 성명환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성욱 교수(고려대 북한학과), 박현진 교수(고려대 식품공학과)
- \* 토론자 : 이철호, 권태진, 박태균, 박효근, 위남량
- \* 참석인원 : 100여 명, 자료집 200부 제작 배포



## (3) 제16회 식량안보세미나(제95회 한림원탁토론회)

-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농업 발전방안



- \* 일시 : 2015년 11월 4일(수) 13:30 ~ 17:00
- \* 장소 : aT센터 세계로룸 I, II
- \* 주최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 주관 :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발표자 : 이항기 부회장(한국소비자연맹), 김주곤 교수(서울대학교), 곽상수 센터장(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토론자 : 이철호, 김호영, 신동화, 안중주, 유장렬, 조규봉
- \* 참석인원 : 130여명, 자료집 200부 제작 배포



#### (4) 간담회

##### a. 제9차 식량안보간담회

- \* 주제 : 쌀의 수요 창출을 위한 가공기술
- \* 일시 : 2015. 3. 13, 11:00~13:00
- \* 발표자 : 이숙중 박사(식량안보연구재단), 김미령 교수(신라대학교)
- \* 참석자: 송광현, 이종규(쌀가공식품협회), 장인성(농식품가치연구소), 금준석(한국식품연구원), 박현진(고려대학교), 오세관, 이점호(국립식량과학원)
- \* 장소 : 고려대학교 재단 사무실

## 2-4. 저술 출판사업

### (1) 단행본 (도서출판 식안연)

#### 1) 건강지킴이- 보리의 재발견 (식량안보 시리즈 제2권)



- 저자 : 김영수, 최재성, 석호문, 신동화
- 출판일 : 2015년 3월 15일
- 정가 : 8,000원
- 출판부수 : 1,000권

#### 2) GMO 바로알기 (식량안보 시리즈 제3권)



- 저자 : 박수철, 김해영, 이철호
- 출판일 : 2015년 4월 30일
- 정가 : 12,000원
- 출판부수 : 2,000부(초판), 재판~4판(6,000부)
- 전국 고등학교 & 중학교 총 5,568권 배포

#### 3) 쌀의 혁명 (식량안보 시리즈 제4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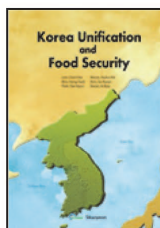
- 저자 : 이철호, 이숙중, 김미령
- 출판일 : 2015년 9월 7일
- 정가 : 10,000원
- 출판부수 : 1,000부
- 쌀가공식품협회 500부 구입

#### 4) 광복 70년 인생 70년



- 저자 : 이철호
- 출판일 : 2015년 10월 22일
- 정가 : 12,000원
- 출판부수 : 1,000부

#### 5) Korea Unification and Food Security



- Lee Cherl-Ho, Moon Huhn-Pal, Kim Yong-Taek
- Kim Se-Kwon, Park Tae-Kyun, Kwon Ik Boo
- Published June 10, 2015
- 정가 : 25,000원 (US\$ 25.00)
- 출판부수 : 500부

## (2) 인터넷 월간 뉴스레터 발간

- 1) 뉴스레터 54호(2015년 1월) ~ 66호(2015년 12월) 발간, 홈페이지 게시
- 2) E-mail 메일링 리스트 2,700여 명에게 발송

## (3) 홈페이지 관리운영

- 1) 홈페이지 업로드 상황 (2015년 1월~12월)  
 뉴스기사 227건, 보고서 14건, 이사장칼럼 40건, 뉴스레터 12건,  
 추천도서 37건, 발표/강의 자료 16건, 세미나 자료집 파일 4건, 갤러리 35건 등

# 2-5.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진행사항

## (1) 초청강연 및 토론발표

- 2/04 ‘대한민국 농업혁신포럼’ - 토론자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적극 수용하는 농업혁신정책이 필요하다’
- 4/30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개관 기념 국제심포지엄  
 - ‘콩세계과학관 추진 경과 및 비전’ 주제 강연 (이철호)
- 11/11 한국산업식품공학회 2015년도 총회 및 ILSI Korea 2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  
 한국의 지속가능한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 방향(이철호), 제주도 해비치 호텔

## (2) TV 출연 및 라디오 인터뷰

- 3/16 대구 TBC -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준비현황 인터뷰
- 11/17 YTN 김윤경의 생생경제 - "남아도는 쌀, 울먹이는 농민, 대책은 무엇?"

## (3) 신문 잡지 기고문

- 1/08 국산 콩을 살리자 - 식품외식경제
- 1/12 [신년사]통일 대비 식량문제 힘 모아야 - 식품음료신문
- 1/16 밀가루만큼 연구돼야 쌀혁명 가능 - CNB저널
- 1/21 [신년사]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해가 되길 - 식품외식경제
- 2/04 보리의 재발견 - 식품외식경제
- 2/11 세계 식량위기 극복 방안 ‘생명공학’ 뿐이다 - 대한급식신문
- 2/12 통일 위한 남한의 영세민 쌀쿠폰 무상지원 제도 - CNB저널
- 2/26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적극 수용하는 농업혁신정책이 필요하다-농업혁신포럼 토론문
- 3/03 밀가루의 누명 - 추천의 글
- 3/09 첨단 생명공학기술이 창조농업혁신을 만든다 - CNB저널

- 3/10 무너진 사회기장 아이들의 먹을거리도 망친다 - 식품외식경제
- 4/03 밥상머리 교육을 부활시키자 - CNB저널
- 4/13 식품학의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 식품외식경제
- 4/17 춘궁기(春窮期)를 기억하십니까? - CNB저널
- 5/11 식품안전과 내부고발의 힘 - 식품외식경제
- 5/26 한국 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 CNB저널
- 6/17 건강기능식품법 재고할 때가 됐다 - 식품외식경제
- 6/18 국민이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 CNB저널
- 6/29 스스로 책임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 식품외식경제
- 7/09 식품안전은 준법정신에서 시작된다 - 글로벌이코노믹
- 7/13 쌀 가공식품 연구 다시 시작하자 - 식품외식경제
- 7/20 교황의 기후변화 환경 메시지 - CNB저널
- 8/17 흔들리는 식량안보, 지급률 OECD 최하위 - 자유미당
- 8/18 음식낭비 줄여 식량안보 달성할 방법 5 - CNB저널
- 8/18 식품산업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 식품외식경제
- 9/14 알래스카 빙하 얼마나 남아 있나? - CNB저널
- 9/14 소위 '예방원칙'의 허(虛)와 실(失) - 식품외식경제
- 9/21 통일미 비축 식품 언론이 앞장서길 - 식품음료신문
- 10/12 자서전 - 식품외식경제
- 10/15 쌀의 변신 - CNB저널
- 10/29 손문기 차장에게 거는 기대 - 식품음료신문
- 11/09 육식문화에 대한 WHO의 회초리 - 식품외식경제
- 11/12 우리들의 사회적책임경영 - CNB저널
- 11/24 쌀 문제, 통일 준비로 풀자 - 농민신문
- 12/03 생명공학과 미래 식량위기 - 글로벌이코노믹
- 12/10 식량의 경제학 - CNB저널
- 12/14 비정상상의 정상화를 위해 해야 할 일 - 식품외식경제
- 12/30 농업 생명공학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서울신문

### 3. 6차년도 재무보고 (2015.01.01 ~ 2015.12.31)



(단위: 원)

수입			지출		
항목	내용	금액	항목	금액	
후원금	대상	20,000,000	인건비(사무간사)	20,907,230	
	농심	20,000,000	인건비(연구원)	11,472,000	
	CJ제일제당	20,000,000	복리후생비	1,100,000	
	삼양제넥스	20,000,000	회의비(자문료 등)	2,243,600	
	쌀가공식품협회	3,500,000	통신비	257,280	
	이시호	2,000,000	세금과 공과금	3,329,160	
	이철호	1,245,000	보험료	3,910,240	
	소계	<b>86,745,000</b>	유인물비	9,510,800	
				홍보비	4,444,000
이자수익	이자&세금환급	2,989,410	운영비(세무사)	4,000,000	
도서판매수익	식안연 발간책자	73,303,139	운영비(DM발송)	3,663,120	
연구과제	영주시 콩박물관도록	15,380,000	운영비(기타)	10,716,298	
세미나지원	식품안전 상생협회	4,000,000	임대료(세미나)	78,980	
전년이월		67,182,816	연구용역비	34,817,300	
<b>총계</b>		<b>249,600,365</b>	<b>소계</b>	<b>110,450,008</b>	
			출판사업	인건비	1,800,000
				원고료	4,221,760
				인쇄비	37,666,860
				발송비 (전국 고등&중학교)	8,201,540
				배본료	5,929,253
			<b>소계</b>	<b>57,819,413</b>	
			<b>총계</b>	<b>168,269,421</b>	

수입	249,600,365
지출	168,269,421
잔액(이월금)	81,330,944
출연금	100,000,000
<b>총잔액</b>	<b>181,330,944</b>

## 4. 2016년도 사업계획

### 4-1. 연구사업

#### (1)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연구(지정과제)

- \* 연구기간 : 2016년 1월 - 12월 (1년 과제)
- \* 총괄연구책임자: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연구원: 이숙중(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제1세부과제: 한·일 식량정책 비교(김태곤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2세부과제: 한·중 식량정책 비교(고재모 교수, 협성대학교)
- \* 연구비 : 2,000만원

#### (2) 세계 식량위기를 해결할 식량생산 신기술

- \* 연구기간 : 2016년 1월 - 12월 (1년 과제)
- \* 과제명 : 식량생산제고를 위한 육종기술 고찰
- \* 총괄연구책임자: 한지학 본부장(주)농우바이오 R&D 본부
- 연구원: 정민, 김미진, 신수창(주)농우바이오 R&D 본부
- \* 연구비 : 2,000만원

### 4-2.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 (1) 제 17회 식량안보세미나

- \* 제목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 \* 일시 : 2016년 8월(예정)
- \* 장소 : 서울프레스 센터 또는 aT센터
- \* 주최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농림축산식품부(예정)

#### (2) 제 18회 식량안보세미나

- \* 제목 : 세계 식량위기를 해결 할 식량생산 신기술
- \* 일시 : 2016년 10월(예정)
- \* 장소 : 서울프레스 센터 또는 aT센터
- \* 주최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농촌진흥청(예정)

#### (3) 식량안보간담회

- \* 수시 개최

### 4-3. 출판사업

#### (1) 식량안보시리즈 제5권 - 식량낭비 줄이기

- \* 저자 : 채희정, 이숙중, 이철호
- \* 출판 예정일 : 2016년 3월

#### (2) 식량안보시리즈 제6권 - 고구마

- \* 저자 :곽상수 외
- \* 출판 예정일 : 2016년 4월

## 5. 2016년도 예산 ■ ■ ■

### 5-1. 재단 운영비

(단위: 원)

항 목	세 부 내 용		금 액	소 계
인건비	사무원		22,800,000	44,000,000
	연구원 및 기타 인건비		21,200,000	
연구사업 지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연구		20,000,000	40,000,000
	세계 식량위기를 해결할 식량생산 신기술연구		20,000,000	
저술지원사업	단행본 출판	식량안보시리즈 5권	7,000,000	20,000,000
		식량안보시리즈 6권	8,000,000	
	출판협동조합 관리비		5,000,000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식량안보세미나 2회		14,000,000	19,000,000
	식량안보 간담회 5회		5,000,000	
회의비/사무실 운영비	회의비(총회, 이사회, 자문위원회, 기타)		3,000,000	23,000,000
	사무실 운영비(임대료, 관리비, 기타)		10,000,000	
	홍보, 광고비(홈페이지 운영, 기타)		5,000,000	
	후생복지비		3,000,000	
	활동비		2,000,000	
<b>합 계</b>			<b>146,000,000</b>	

## 6. 이사장 칼럼

[전문가의 눈-이철호] 쌀 문제, 통일 준비로 풀자 - 농민신문 2015-11-24

쌀 풍년으로 쌀 산업이 붕괴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쌀 재고량이 매년 누적되어 136만t에 달하고, 쌀값 하락은 고사하고 도정공장에서 버려 쌓아둘 곳이 없어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가공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으나 효과가 금방 나오는 일이 아니다. 남은 쌀을 사료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쌀 문제, 이제는 결단을 할 때라고 아우성이지만 농업분야에서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쌀 문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풀어야 한다. 쌀을 통일을 앞당기는 축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통일을 위한 쌀의 역할을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식안연, 2014)>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통일이 되면 북한은 논 면적이 적기 때문에 7000만 인구가 먹을 쌀은 대부분 남한에서 생산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남한에서 쌀이 좀 남는다고 해서 쌀 생산을 줄이고 논 면적의 급속한 감소를 방지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아니다. 2010년 96만ha이던 남한의 논 면적이 불과 5년 사이에 80만ha로 감소했다. 이를 201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연 480만t의 쌀 생산 능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연간 400만t의 양곡을 생산하고 있으며 약 100만t이 부족한 상태이다. 양곡 생산량 중 240만t은 쌀이고 160만t이 옥수수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은 옥수수보다는 쌀을 선호할 것이며 적어도 200만t의 쌀이 더 필요하게 된다. 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남한에서 통일미 120만t을 항시 비축하자는 주장이다. 매년 60만t의 쌀을 2년간 비축하였다가 쌀 가공산업의 원료로 방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가 경비는 약 4844억 원으로 추산되며, 우리 정부 외교통일예산의 11.8%에 해

당한다.

북한주민을 위한 비축미가 있다고 해도 통일과 동시에 북한주민에게 부족한 쌀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를 위해 남한에서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쌀 무상지원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전체 국민의 7%)에게 월 10kg의 쌀과 쌀가공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쌀쿠폰을 지급해 진정한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면, 통일 이후 남한 국민이 된 북한의 저소득층에게 자동적으로 쌀을 지원할 수 있다. 남한에서 저소득층 쌀 무상지원제도로 발생할 쌀의 추가 수요량은 약 17만5000t으로 추산된다.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추가 경비는 8106억 원으로 예상되며, 우리 정부 보건복지예산의 0.8%에 불과한 금액이다.

남한 국민이 북한동포를 위해 120만t의 쌀을 항시 비축하고 있고, 통일이 되면 즉시 식량을 지원할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통일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통일미 비축을 위한 예산을 요청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소득층 쌀 무상지원제도를 위한 예산을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이 될 수 있다.

쌀 문제는 농업인만의 문제이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에서 투쟁해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농업은 국토를 보존하고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가는 주역이며, 그 중심에 벼농사가 있다. 국가를 보존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쌀 문제는 온 국민이, 모든 국회의원이, 정부의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문제의 시급성으로 보아 금년 내에 이 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철호 복지칼럼] 쌀의 변신 - CNB저널 2015-10-15

우리는 전통적으로 쌀은 밥을 지어먹는 재료라는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다. 쌀밥은 우리의 주식이므로 쌀의 용도는 밥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 쌀이 크게 변신하고 있다. 더 이상 쌀을 사서 집에서 밥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형태로 가공되어 슈퍼에서 구입하여 그대로 먹는 간편식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즉석밥 시장의 확대이다. 워킹맘과 1인가구 수가 늘고 주 5일제 확산과 캠핑 등의 여가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즉석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1996년 CJ의 ‘햇반’이 처음 출시된 이래 여러 식품 대기업이 가세해 2002년 278억 원이던 시장 규모가 2013년에는 1676억 원으로 6배 증가했다. 초기의 즉석밥 시장은 쌀밥 중심이었지만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이 늘면서 현미밥, 흑미밥, 오곡밥 등 집에서 해먹기 어려운 잡곡밥 제품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다른 반찬을 준비하지 않아도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별도의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 없는 상온보관 즉석밥 시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컵밥류’ 제품군의 시장 성장세는 대단하다. 또한 전자레인지에 덩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각종 냉동 볶음밥류도 상품화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즉석밥의 대중화는 한식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난 1997년 대한항공은 기내식에 처음으로 한식 메뉴인 비빔밥을 도입했고, 이때 즉석밥이 나물과 함께 제공되었다. 비빔밥, 찜밥 등은 그 동안 기내에서 볼 수 없던 한식 메뉴로, 우리 국민의 호응은 물론 많은 외국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한식의 건강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햇반의 연간 기내식 판매량은 400만 개를 넘고 있다.

### 쌀 가공산업의 확장이 반기운 이유

서양의 발전한 제빵 기술과 제과 기술에 밀려 한동안 기를 못 쓰던 우리의 떡과 한과가 서서히 시장을 만회하고

있다. 설탕과 버터를 베이스로 한 케이크와 과자를 멀리하고 건강에 이로운 떡케익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고도의 기술로 맛과 저장성을 향상시킨 떡과 한과 제품들이 고급 식품으로 팔리고 있다. 국수와 라면은 밀가루로만 만드는 줄 알았던 소비자들이 즉석 쌀국수와 쌀라면을 보고 환호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특히 글루텐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서양인들에게 글루텐-프리 제품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러한 쌀의 변신에 대해 우리 정부도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쌀 가공식품 시장을 매출 5조 원, 수출 1억 달러 규모의 고부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원료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쌀 가공 업체 육성, 쌀 가공식품 국내외 시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쌀 재고 처리에만 급급해 쌀이 남으면 가공용으로 방출하고, 남지 않으면 나 몰라라 방치하여 관련 기업의 투자와 생산 의욕을 어렵게 하던 정부가 최근에 와서야 쌀 가공산업 육성 방향을 고부가가치 창출에 두고, 국산 쌀을 중심으로 한 고급화, 다양화, 차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쌀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주식이 되고 우리 농업의 뿌리로 남아 있게 하기 위하여 쌀의 수요 창출과 쌀 가공산업의 발전은 대단히 중요하다. 벼농사는 우리 농업의 근간이며, 쌀의 소비 확대는 우리 농업이 활성화되어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통일미 120만 톤을 항시 비축하여 통일 이후를 준비하고, 저소득 영세민의 생계에 필요한 쌀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진정한 복지 국가를 만드는 것도 쌀만이 해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역할이다. 우리 국민이 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신하는 쌀을 도와 새로 개발되는 새로운 쌀 가공식품을 적극 애용하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하고 농민을 살리는 길이다.

## [월요논단] 국산 콩을 살리자 - 식품외식경제 2015-01-08

동반성장위원회가 3년 전 두부를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지정하면서 콩 재배농가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국산콩을 두부제조에 사용하던 대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면서 국산콩 소비가 급감했다. 중소 두부제조업체들은 국산콩을 외면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들어오는 값싼 수입콩만 사용했기 때문이다.

올해 대기업의 국산콩 수요는 3년 전보다 3천t 가량 줄었다고 한다. 국산콩(백태 상품 1kg) 도매가격은 11월 현재 3995원으로 1년 전의 5193원에 비해 23% 하락했고 2013년도 평균가격 6228원에 비해 36% 떨어졌다. 그런데 TRQ 수입콩은 콩 가공산업에 kg당 1020원에 공급되고 있다. 이대로 계속되면 국산콩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 식용콩운영개선협의회에서 수입콩 수입물량을 줄이고 내년부터 5년 동안 수입콩 공급가격을 현행 1kg당 1,020원에서 3,09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만사지탄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까지 식량안보를 도외시했던 우리나라 농정에 큰 변화가 감지되는 사건이다. 우리의 식량안보를 위해서 쌀과 콩은 반드시 자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지난해 초에 출판한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에서 식용콩의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TRQ로 들어오는 가공용 수입콩의 양을 줄이고 공급가격을 올려 국산콩과의 가격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콩 가공식품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해제해 대기업이 국산콩을 사용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가공식품업체에서 저가의 가공용 수입콩을 배정받으려면 같은 양의 국산콩을 구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물가안정을 위해 식량안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1990년대까지 65% 수준이던 우리나라 식용콩 자급률은 현재 30%를 밑돌고 있다. 우리나라 식용콩 소비량은 연

간 45만t 수준이나 국내 생산량은 13만t에 불과하다. 우루과이협상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CMA 물량은 연간 18만6천t이지만 국내 생산량 감소로 인해 추가로 2~4만t을 증량해 수입하고 있다. 관세 5% 밖에 내지 않는 TRQ 수입콩을 배정받기 위해 중소 가공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국산콩 가격의 1/5밖에 안 되는 수입콩을 사들여 국내 콩 생산을 황폐화시켜온 것이다. TRQ 수입콩 배정 조건으로 동량의 국산콩 수매를 의무화 하면 당장 국산콩의 수요를 10만t 늘릴 수 있다. 국내 콩 생산량이 23만t으로 늘어 자급률이 50%를 넘게 된다.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결정한 식용콩운영개선방안은 이런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로 쌀 자급 달성 이후 오랜만에 보는 우리 농정의 옳은 결정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싶다. 정부가 식용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펴려면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저촉되는 문제도 있고 중소 가공식품업계의 반발과 로비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WTO 규정을 비껴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국산콩을 사용하는 대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것이다.

콩의 자급은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콩을 무작정 들여오기에는 우리 경제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

선진국이 되려면 식량안보를 생각해야 되고 식량자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조금 저렴한 두부를 공급할 것인지 실의에 빠진 농민을 살리고 식량자급률을 높여 이 나라의 식량주권을 공고히 할 것인지는 정부가 선택해야 할 몫이다.

## 콩세계과학관 추진 경과 및 비전 - 2015. 4. 30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개관식

1998년, 한국식품연구원을 창설하시고 초대원장을 지낸 인제대 권태완 교수님, 경희대 권신한 교수님,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장을 지낸 홍은희 박사님, 그리고 제가 대신농촌문화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에 국제규모의 콩 박물관 건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콩의 기원은 남만주와 한반도이고 콩을 식품으로 최초로 사용한 사람들은 한민족의 조상인 동이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콩박물관을 건립할 꿈을 갖게 되었다.

콩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추정이 있으나 식물학자들은 가장 많은 야생종이 발견되는 남만주와 한반도가 콩의 원산지라고 믿는다. 많은 탄화콩들이 신석기후반(BC 2000)과 초기 청동기시대(BC 1500)의 한반도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대한해협(Korea Strait) 연안에서 시작된 원시토기문화시대(BC 6000)에 이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발효기술이 시작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콩을 식용으로 사용한 이른 시기부터 콩을 발효할 수 있는 기술적 배경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본다.

중국의 고서「管子」에 의하면 콩은 BC 7세기경 제(齊)나라의 환공이 산융(山戎)을 정복할 때 남만주로부터 중국에 가져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콩식품과 콩발효 식품에 대한 기록들은 중국 한(漢)나라 시대(BC 202-AD 220) 문헌이나 유적에서 발견된다. 콩이 식품으로 일본에 전파된 것은 AD 3세기경 한국으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는 중국으로부터 AD 4-7세기경 전파된 것으로 여겨진다. 유럽과 북미로 전파된 것은 18-19세기였다.

콩과 콩식품의 기원지인 한국에 콩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식품학과와 관련 산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그리하여 2001년 1월, 권태완 박사님을 중심으로 콩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박물관 건립 장소를 물색하는 일과 기금 모금이 시작되었다. 한편으로는 박물관에 전시할 내용을 문헌 고증을 통해 확보하기 위해 콩 관련 책을 저술하기로 뜻을 모아, 마침내 2005년 '콩(大豆, Soybean)'이 고려대학교 출판부에 의해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15장(17명의 저자), 794페이지

지에 걸쳐 콩의 역사, 고고학적 자료, 육종과 재배, 식품 가공과 영양, 산업적 용도 등이 망라되었다. 이 책이 콩세계과학박물관의 기초가 되었다. 2008년 4월에는 사이버 콩세계박물관과 홈페이지(www.soyworld.org)가 개설되었다.

2008년 12월, 영주시에 콩세계과학관을 설립하기 위한 MOU가 한국콩연구회와 영주시 사이에 체결되었다. 2009년 5월 콩세계과학관 건설기본 계획을 위한 프로젝트가 영주시에 의해 발주되었으며, 전시내용을 담은 콩스토리텔링 작성 사업이 건립추진위원회의 지원으로 이루어 졌다.

2013년 2월, 콩세계과학관 기본 디자인이 완성되었고 3월에 박물관 건물 착공식이 열렸다. 2014년 9월 마침내 전시실, 체험실, 콩생육장이 완성되었다. 특별히 콩생육장은 정식품의 설립자인 정재원 명예회장께서 기금을 지원하여 이루어졌다. 콩세계과학관 건립추진위원회는 박물관이 건축되는 전 과정에서 전시 콘텐츠의 감리 감독을 맡았다.

그러면 왜 영주에 콩세계과학관이 설립되었는가? 첫째, 영주는 '부석태'의 고향이다. 전통 콩 품종 중 '부석태'는 영주의 유명한 사찰 부석사에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다. 둘째, 영주시는 박물관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영주시는 박물관 부지를 제공하였고 건설과정을 총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주시가 과학박물관을 짓는데 지원하였다. 박물관의 명칭이 콩세계과학관이 된 이유이다. 박물관을 둘러싼 부석사와 소백산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전경은 영주에 콩세계과학관이 들어선 또 다른 중요 요인이다.

영주에 건립된 콩세계과학관은 세 개의 주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박물관은 앞으로 건립될 콩 테마타운의 센터가 될 것이다. 콩 테마타운은 콩가공기업이나 콩과 관련한 푸드 코트나 식당, 콩 문화 활동의 중심이 될 것이다. 영주시는 이미 콩 테마타운 건립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였다. 둘째, 콩세계정보센터(Soy-world Information Center)를 박물관 내에 두어 운영할 것이다. 콩세계정보센터는 한국콩연구회와 협력하여

국내외 콩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콩세계과학관은 국제규모의 콩연구센터(International Soybean Research Center)를 영주에 유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UN국제콩연구소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다. 이는 또한 장욱현 현 영주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 과제의 실행 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이 관여하는 한국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영주시는 기꺼이 초기 유치 작업을 주도하고 태스크 포스팀에 참여할 계획이다. UN산하 국제콩연구소 설립을 위한 실행가능성 연구,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문제, 연구소 위치, UN FAO와의 접촉 등 유치에 필요한 업무들이 포함될 것이다.



### 손문기 차장에게 거는 기대 - 식품음료신문 2015-10-2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손문기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을 식약처 차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보도했다. 손차장은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5급 특채로 식약처에서 공직을 시작한 사람이다. 그동안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확대되는 것에 비해 식품전공자들의 식약처 내 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이다.

분석기술의 발달과 생명과학의 진보로 인해 식품의 유용성과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약품은 먹을 수 없는 독성 물질을 질병이라는 위기상황에서 투여하는 물질인 반면에 식품은 먹을 수 있는 물질을 매일 안전하게 먹어야 하는 것이므로 식품의 안전관리는 약품과는 출발점이 다르고 관리체계도 달라야 한다.

식품안전관리를 약품의 잣대로 잘못 예단하여 발생한 식품사고가 적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나친 우려와 불신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다. 식품은 모든 사람이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 물질이므로 원활한 공급과 식량안보 확보가 안전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안전관리를 따질 겨를이 없으며, 안전하지 않으면 쌓아 놓고도 먹지 못한다. 식품 위생 또는 안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줄어들고 가격은 상승한다. 따라서 식품안전관리는 약품과는 달리 국민에게 필요한 식량 공급 능력과 안전관리 수준을 조정하여 원활한 식품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식과 판단력을 배우는 학문 영역이 식품학이다. 손문기 차장의 발탁을 반기는 이유이다.

우리 사회에는 독성학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위해요소(hazard)와 위험(risk)을 구분하지 못하고 완벽한 식품을 요구하는 경향이 크다.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감상적인 불신을 키우는 개인과 단체들이 많다. 언론도 이러한 경향이 크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내세워 식품의 원활한 수급을 방해하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식품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제대로 교육받은 인재들이 필요하다. 식품학 전공자들이 식품의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안전 관리를 하여 소비자들을 안

심시켜야 한다. 이번 식약처의 인사를 계기로 하여 식품 안전관리에 적합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책임

있고 전문화된 식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 [이철호 복지 칼럼] 한국 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 CNB 저널 2015-5-26

요즘 우리 사회의 기강이 파괴되고 도덕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 되었을 때만해도 희망은 있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주소지를 옮기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총리나 장관의 후보 지명이 철회되고 뭔가 우리 사회가 맑아지고 걸러지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듯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는 발전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웬만한 잘못은 흔히 있는 일로 치부되고 명백한 병역 기피나 다운 계약서에 의한 탈세 행위마저도 저희들끼리 면죄부를 주는 작태가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후보 지명을 수차례 좌절당한 대통령들의 오기가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실책이다. 이로써 법을 존중하고 지켜온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를 토하는 배신감을 안겨 주고 온 국민을 병들게 하고 있다.

법은 힘없는 자들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틈만 보이면 법을 어기려는 사람들로 들끓게 되었다. 저축은행 사건, 한수원 원전 비리, 방위산업 비리, 각종 관피아 비리 등 대도(大盜)들이 난무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최근 한 기업인의 자살 사건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저절하게 노출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기업인을 이용해 나랏돈을 세탁해 먹던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도 역시 흐지부지 끝날 것 같다. 중요한 증거 자료를 다 빼돌린 후에 압수수색을 한다고 법석이다. 희망이 없어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가 타고 있는 대한민국호에는 배 밑바닥을 뚫으려고 애쓰는 무리들이 너무 많다. 이 명백 정부 출범 초기에는 '광우병 대란'을 일으켜 선장을 혼절하게 만들고 집권 5년을 의기소침한 채 오락가락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세월호 사건을 이용해 나라를 혼미 속으로 끌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력은 쇠하고 피해 유족들은 국민의 사랑에서 멀어

지고 있다. 종북 세력을 등에 업은 야당의 행보에 국민들이 긴장하는 이유다.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는 '통일 대박론'이다. 통일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분야에서 통일 준비를 위한 일을 찾아 나서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나라인지 묻고 싶다. 남한이 주도하여 통일을 하려면 남한 사회가 북한 주민이 함께 살고 싶은 나라여야 한다. 사회 기강이 서 있고 법이 공평하게 운용되고 문화적 정통성과 도덕적 우수성이 보여야 한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법과 기강이 무너지고 대도가 난무하는 사회가 어떻게 북한 주민과 함께 살자고 말할 수 있는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우리의 명운을 걸고 이 사회를 고쳐나가야 한다. 지금이 바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일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이 사회의 가치관과 삶의 철학을 재정비할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나와야 한다. 권력 주변에서 맴도는 불나방들이 아닌 철학과 인격을 갖춘 큰 스승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한다.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위기 때에 관군은 다 도망가고 민초들이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키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징비록에서 보여주는 임진왜란의 의병과 일정시대 항일투쟁을 한 조선의 '노블리스'가 이 시대에 되살아나야 한다. 높은 도덕성과 자기 성찰에 철저한 인물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 사심을 버리고 돈을 알기를 돌처럼 알고 공선사후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단정하고 권력 주변에서 쉽게 등용하는 오늘의 인사정책이 이 나라를 망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정착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구한말의 뼈아픈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될 것이다.

한림원의 목소리 제 59호  
**VOICE OF THE KAST**

#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창조농업혁신을 촉구한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2050년에는 세계인구가 9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나 지구온난화로 기존 농업의 식량 생산성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는 농업혁신으로 제 2의 녹색혁명을 일으켜 식량생산을 지금의 두 배로 늘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놓여있다.

농업혁신의 근간은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우리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하여 지속가능한 고소득 농업경영을 달성하는 것인데, 우리의 현실은 일부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불안감으로 기술혁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중국은 생명공학에 의한 신제품 개발을 국가 중점 연구개발 사업으로 채택하여 이미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로써 다국적 종자 기업들의 독점적 시장진입을 막고 자체 개발한 생명공학 작물 재배로 농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위한 수준 높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30여년의 연구 성과로 우리 농업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수의 생명공학 신제품을 개발해 놓고 있으나 합리적 절차를 통한 실용화 노력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것은 우리 농업의 어려움과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과 정부의 의지부족이며 효과적인 정보전달과 소통에 실패한 결과다.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생명공학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종자에 의존하는 농업 종속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과학계와 정부는 생명공학에 의한 창조농업혁신을 위한 특단의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우기를 촉구한다.

## 1. 우리나라 과학계는 과학적 판단에 근거한 생명공학 신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올바른 정보전달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 과학계는 일부 반대론자들이 유전자변형생물체 (GMO)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도전이며 방해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들을 설득하고 과학적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 상용화된 GM작물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안전성 평가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것으로, 이들 GMO 신제품의 재배면적이 세계 총 경작지 면적의 12%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GM 작물이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사료용이나 식품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아 농업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은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논란을 계속하는 행위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 한림원의 목소리 제 59호 VOICE OF THE KAST

### 2. 초중등 과학교과서에 기재되어있는 GMO 식품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과학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로 수정해야 한다.

학과와 정부는 현재 초중등 과학교과서에 기재되어 있는 생명공학에 대한 부정적 서술, 예를 들어 GMO 식품의 위험성, 생태계 악영향, 윤리 문제 등에 대해 재평가하고 과학적사고와 미래지향적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생명공학기술은 21세기 농업 혁신의 중심 기술이며 인류의 미래 식량을 책임지는 기술임을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 3. 정부는 생명공학기술의 이용에 대한 현재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이미 개발된 생명공학 신제품의 실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의 생명공학기술 확보 노력을 통해 바이러스저항성 고추, 영양성분 강화 고부가 쌀 등 우리 농산물의 가치 향상과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 가능한 유용 신작물을 다수 개발하여 외국으로부터의 기술협력 제안도 받고 있으나 막상 국내에서는 부정적인 사회분위기에 밀려 식용이나 재배용이 아닌 산업소재로의 활용까지도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생명공학기술에 우리 농업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안전성이 확인된 생명공학 신제품의 합리적 실용화에 박차를 가해 창조농업혁신을 통한 우리 농업의 선진화와 농업생명공학 산물을 활용한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

### 4. 정부는 생명공학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생명공학기술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최근 세계 과학계는 유전자재조합기술 이외의 다양한 유전자기술, 예를 들어 유전자편집기술 등, 신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연구개발 투자가 미진한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이 분야의 기술경쟁에서 뒤떨어지고 농업 후진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가 미래를 창조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생명공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실용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 5.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농업혁신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가칭 '식량안보법' 제정을 촉구한다.

정부의 기술혁신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는 식량자급률이 위험수위 이하로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를 30%로 잡았으나 2014년도 자급률은 24%에 머물러 목표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칭 '식량안보법'을 제정하여 식량자급률 목표를 높게 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제도를 수립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www.foodsecurity.or.kr

**KFSRF 한국식량안보연구원** 검색으로 재단소개 02841

재단소개 연구지원사업 출판사업 국민운동 소개 세미나 자료실 동영상 갤러리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공지사항 바로가기 >  
· 고열량 저열량 식품 표시 ...

**twitter**

○ 재단소개  
한국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종합적인 식량안보정책의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DATA ROOM** >  
각종 자료실 인력·장비·자금

**동영상 갤러리** >  
서포터즈 관련한 동영상 및 기자회견 영상 수집 가능합니다.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바로가기 >

**상/담/문/의/전/화**  
공공혁신성 무엇이든 신청서 담변해드립니다.  
**02.929.2751**  
FAX **02.927.5201**

**대한민국 식량 공공·식품안전권을 지키는 한국식량안보연구원**

[+연구지원사업] more >

- 2016년도 제1회 연구과제 모집
- 농업환경기술포럼 이윤환 회장님을 초청합니다...
- 농업농촌혁신을 위한 과학화산연구 등...
- 2016년도 연구과제 제안서 및 연구계획서...

[+세미나] more >

- '고열량 저열량 식품 표시 제도화하기' ...
- US BeBeTo Meeting US Home 20...
- 제18회 한·일·중·미·러·영·일 (제18회) 식량안...
- 제 18회 한·일·중·미·러·영·일...

[+뉴스리뷰] more >

- 뉴스리뷰 제18호
- 뉴스리뷰 제18호
- 뉴스리뷰 제18호
- 뉴스리뷰 제18호

[+출판사업] more >

- '글로벌 바로잡기' 전문 출판교과서 기획
- '황금의 시간' 이윤환 회장 70년 일...
- '황금 70년 일곱 70년' 이윤환 이사...
- '글로벌 바로잡기' 전문 고등학교 교...

[+논문] more >

- Food in a future of 10 billion
- 한·일·중·미·러·영·일 식량안보 - 한국과 학기...
- A Meta-Analysis of the Impact of Ge...
- THE OXFORD HANDBOOK OF FOOD PERIENIT...

[+뉴스기사] more >

- '한·일·중·미·러·영·일' 식량안보 - 불...
- '일·일·일'이 '일·일·일' - 불...
- '식량'을 '물'로 대체할 수 있는 날...
- '살인' 한류, 어떻게 하이어나? - 불...

**동영상** more >

  
 영주 부부단...

  
 YTN 김준영회...

  
 영주시 출제...

**갤러리** more >

  
 NIB 갈사회 ...

  
 NIB 갈사회 ...

  
 한·일·중·미·러...

스 홈으로 재단소개 자료실 동영상 갤러리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동관) 109A호 | 02481  
COPYRIGHT © 2016 FOODSECURITY ALL RIGHT RESERVED.  
Email: foodsecurity@foodsecurity.or.kr



### 한국식량안보연구원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동관)109A  
TEL: 02-929-2751 FAX: 02-927-5201 E-mail: foodsecurity@foodsecurity.or.kr  
www.foodsecurity.or.kr